

2023
04

Printing Journal
인쇄저널



k·print 2023

KIPES 2023
제26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 LABEL 2023
한국레이블전시회

K PACK 2023
한국패키징전시회

K DIGITAL PRINT 2023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 TEXTILE 2023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 SIGN & AD 2023
한국사인·광고전시회

2023. 8. 23 수 - 26 토
KINTEX 제2전시장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연구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The Economy News | 인쇄가 | PRINTINGTRENDS | 프리팅크리에이티브 | 사인문화

참가신청 문의

한국이앤엑스
Tel. 02.551.0102
E-mail. kprint@kprint.kr



www.kprint.kr



Contents

통권 425호 | 월간 | 비매품 | 1990년 3월 23일 등록
발행인·편집인 김윤중 | 발행일 매월 10일
편집위원장 류명식 | 편집위원 전준호, 조율기,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김현택) 02. 333. 8631(내선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 140(쌍림동 146-1)
www.spiic.or.kr
인쇄·디자인·DM 에스아이디엠 02. 822. 5114

SIDM 인쇄·디자인·DM발송·한국형 3D 팝업카드 Total Company

DM발송대행 / 정기간행물발송 / 사보·사외보·서적 전문발송 / 각종 소포, 택배 포장발송 / 소량 및 다량우편물 포장발송 / 해외 포장발송 / 각종 봉투제작 / 다품종 컬러 디지털인쇄 / 개인가변화 디자인 및 인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7길 9 SIDM
TEL 02. 822. 5114 | FAX 02. 822. 4414
홈페이지 www.sidm.co.kr | 인쇄소핑플 www.dmpriint.co.kr
3D 입체카드 www.leeumdream.com

4

스페셜 테마

- K-콘텐츠 시장의 발전과 인쇄물 수출
- 해외 소비자, 한국 인쇄물을 '역직구'하다

8

스픽뉴스

- 서울인쇄조합, 이렇게 나아갑니다
-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간담화·회의를 통해 인쇄업계 현안 논의

11

새로운 소식 I

- 3부회, 3월 간사회 개최
- 조합, 특별위원회 관련 회의 진행
- 대한그래픽기술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12

새로운 소식 II

- 서울산악회, 2023년 시산제 개최
- 인산회, 2023년 시산제 열어
- ㈜타리유통,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13

Notice

- 조합원 동정 외

14

클로즈업 I

- 「인쇄업계 현안논의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16

클로즈업 II

-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

포커스

-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4월 1일부터 하토가이 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 승계고민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안내
- 가업승계 세제개편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맞춤 컨설팅 제공

20

지식의 샘

- 2023년 4월 추천도서
- 2030 축의 전환 | 초거대 위험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

K-콘텐츠 시장의 발전과 인쇄물 수출

해외 소비자, 한국 인쇄물을 '역직구'하다

- '22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5년 연속 최고실적 경신
- 전세계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 '파란불'... 코로나에도 영향 없어
- 2022년 인쇄물 수출실적 <전자상거래 부문> +229% 성장... K-POP을 중심으로 포스터·포토카드·사진집 등 수출 급등



한국의 K-POP은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았다. ©KCON.

사상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을 견인한 'K-콘텐츠'

K-콘텐츠의 약진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의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수출실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의 무역투자연구센터는 「2022년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매(B2C)시장의 수출실적을 조사·발표했다.



지난 3월 28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0장 중 8장이 K-POP 앨범이다.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9.1억 달러로 5년 연속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 각지의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문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해외 배송을 통해 물건을 받아보는 '직접 구매(직구)'가 인기를 끌었다. 직구가 유행한 까닭

은 정식 수입된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글로벌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제품을 소비하며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두 요인 중 해외 소비자가 역으로 국내 제품을 직구하는 '역직구' 현상은 후자에 가깝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유튜브·넷플릭스 등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의 음악(K-POP)·영화·드라마 등과 같은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만 건, 전년 대비 %)

구분	전자상거래				한국 전체 수출	
	금액	증감률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0년	409	111.5	456	81.5	512,498	△5.5
2021년	858	109.9	749	64.4	644,400	25.7
2022년	911	6.1	639	△14.7	683,585	6.1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2022 K-커뮤니티 페스티벌'은 해외 각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한류 커뮤니티가 모인 축제의 장이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년 트위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보다 동남아시아에서의 K-POP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witter

코로나 팬데믹에도 판매 급증한 ‘음반’과 ‘인쇄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주목할만한 도약을 이뤄낸 배경에는 음반과 인쇄물 부문이 있었다. 먼저 음반 수출은 K-POP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향유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며 중국·북미·중남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2022년 한국 전체 음반 수출은 2.3억 달러(한화 약 3천억 원)로 전년 대비 38.7% 성장했으며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음반 수출액은 2억3311만 달러(약 2895억 원)이다. 한국의 음반 수출액은 2017년 처음으로 4000만 달러를 넘긴 이래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6% 늘었다.

지난해 한국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해 간 국가는 일본으로 8574만 달러(약 1065억 원)로 집계됐다. 이어 중국 5132만 달러(약 637억 원), 미국 3887만 달러(약 48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아이돌 포스터·포토카드·사진집 등의 수요가 높아지며 한국의 인쇄물 ‘역직구’ 수출실적은 지난해 1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성장했다.

매년 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중요성 높아질 것

앞으로 글로벌 소매판매액 중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2022년) 전체 수출 건수 1,345만 건 중 전자상거래 수출이 639만 건으로 47.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 상태다.

물론 소매판매의 한계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전체의 0.1%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미국·일본·중국을 넘어 유럽·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넘어 북미·유럽·동남아로 향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

보고서의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일본·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에 있으나 북미·유럽 등 서양과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판로가 확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출 1·2위를 다투던 동아시아 국가를 제치고

미국이 한국의 음반류(+42.1%)를 포함 프린터기(포토프린터 등, +192.5%), 보건용 마스크(+61.7%)를 많이 구매하며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전년 대비 증감률 37.3%)도 화장품·음반류 등 한류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전년 대비 증감률 69.4%)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향후 한국 제품을 역직구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전 세계 전자상거래 전망(eMarketer, '22.7월)

- 매출규모(증가율)
'22년 5.7조 달러(9.7%) → '23년 6.3조 달러(10.4%)
- 전 세계 소매판매액 중 전자상거래 비중
'21년 18.8% → '22년 19.7% → '23년 20.8%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만 건, 전년 대비 %)

순위	품목명	금액					순위		
		2020	2021	2022	증감률	비중	2020	2021	2022
1	화장품	144	267	281	5.4	30.9	1	1	1
2	기록용 매체 (음반·영상물)	13	71	99	39.6	10.8	6	2	2
3	플라스틱류 (문구류 등)	6	40	37	7.9	4.1	13	4	3
생략									
8	인쇄기 (포토프린터 등)	0.04	9	22	160.4	2.4	-	16	8
9	인쇄물 (포스터 등)	0.7	5	17	229.0	1.9	-	26	9
10	저지·가디건	8	15	17	13.2	1.9	7	11	10

서울인쇄조합, 이렇게 나아갑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회의를 통해 인쇄업계 현안 논의

지난 2월 21일 제61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이 출범한 김윤중 이사장과 제27대 집행부는 이사진 선임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이 능동적으로 인쇄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소재 인쇄업체의 70%가 밀집한 중구 지역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와 지난 2017년 지정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업계에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구청·서울시의회 관계자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합원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중구청장과의 간담회



중구청장과의 간담회

지난 2월 28일 김윤중 이사장은 중구청을 방문하여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으로 인해 인쇄인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전달했으며, 대구나 대전 같은 지자체의 경우 인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인쇄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인쇄업체가 밀집한 중구에서도 인쇄산업단지 및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을 통한 인쇄산업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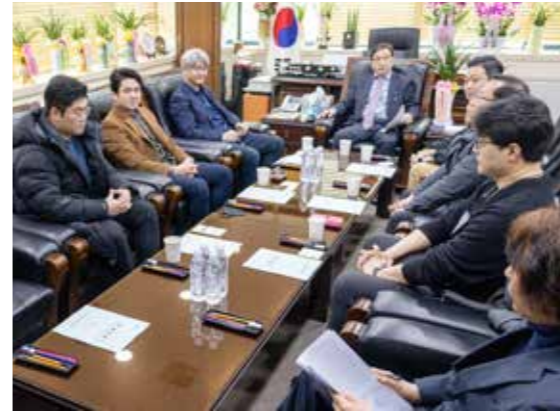
(관련 기사 : 『인쇄저널 3월호』 9쪽)

2. 서울시의원과의 면담

서울시로부터 인쇄 스마트앵커 및 인쇄 박물관(역사관) 건립 등 인쇄산업에 대한 진흥계획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대책 마

련과 「서울시 인쇄산업진흥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조합은 박영한·옥재은 서울시의원과 면담을 추진하고 의견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젊은 인쇄인과의 간담회



젊은 인쇄인과의 간담회

조합의 청년 인쇄인들과 인쇄업계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쇄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젊은 인쇄인과의 간담회」를 지난 3월 9일 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합의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제27대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사업들을 소개하며 젊은 인쇄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쇄물 수출 증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인쇄물 수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초청, 참석자들은 PT 발표를 토대로 구축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4. 인쇄업계 현안논의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

조합은 인쇄산업진흥계획 추진·기능인력 양성 등 인쇄업계의 오랜 현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한국인쇄학회와 인쇄 관련 학과 교수진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간담회를 지난 3

월 21일(화) 개최했습니다. 조합은 인쇄업계의 산학연의 소통채널로서 기능하며 업계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 14쪽에서 계속)

5.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

서울시는 올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며 향후 서울시의 공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5,500여 개의 인쇄업체가 밀집한 중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남북녹지축으로 구성되어 우리 인쇄업계가 타 지역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조합은 지난 3월 30일(목) 서울인쇄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지정된 「중구 인쇄 특정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중구에 구체적인 진흥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여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기사 : 16쪽에서 계속)

Printing Journal NEWS

4
APRIL

3부회, 3월 간사회 개최

김윤중 이사장,
간사회에 참석하여 조합 추진사업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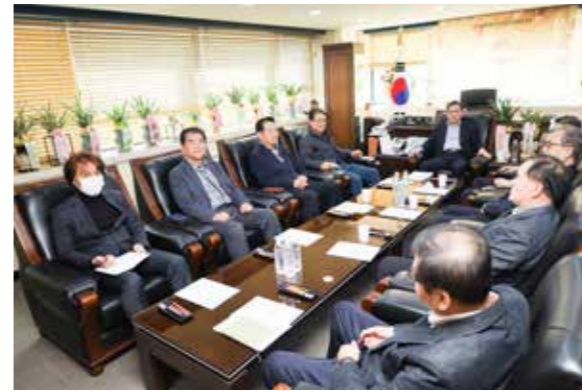


1. 책자인쇄부회 간사회(3.8/호텔PJ)
2. 일반인쇄부회 간사회(3.15/호텔PJ)
3. 상업인쇄부회 간사회(3.15/충무로 부산복집)

조합의 3부회는 지난 3월 간사회를 개최하여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조합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3월 8일(수) 책자인쇄부회(간사장 전준호)는 호텔PJ 베라홀에서 간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3월 15일(수)에는 일반인쇄부회(간사장 이태영)와 상업인쇄부회(간사장 모종근)가 각각 호텔PJ 베라홀과 충무로 부산복집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대한 사의를 전하는 한편 조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하는 한편 조합원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선거공약인 「지역 인쇄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해 중구청장·서울시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우리 조합과 인쇄업계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이사진 구성과 동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들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겠다”라고 전했다.

조합, 특별위원회 관련 회의 진행 소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쇄업계 현안에 대응할 것



지난 3월 7일(화)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 운영에 ‘특별위원회’를 도입하는 안건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윤중 이사장은 조합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27대 집행부는 12개의 특별위원회를 토대로 조합과 인쇄업계의 현안이 발생하는 즉시 소관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즉각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각 위원회는 이사진과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물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 운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경남인쇄사 김종호 대표, (주)경인디앤피 안경만 대표이사, 삼아인쇄사 김상호 대표, 송죽문화사 장세훈 대표, (주)에스케이씨앤피 임인영 대표이사, 한양애드 최영식 대표 등 제26대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참석했다.

대한그래픽기술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정기총회와 함께 제18회 대한민국그래픽산업대상 시상식 진행



사진·자료 협조: 월간PT

(사)대한그래픽기술협회(회장 이영수)는 지난 3월 21일(화) 국도호텔에서 2023년 정기총회 개최와 동시에 제18회 대한민국그래픽산업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영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업계의 주인이며

미래 그래픽산업을 열어갈 주역들”이라며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인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철 (주)한성피앤아이 대표이사 △김유석 글로벌로지스틱 대표 △박배호 (주)월드레이저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신종이 세진문화 대표 △션에스지엠(주) 광재혁 차장 △이용기 (주)도야 대표이사 △김도진 (주)포유프린팅 이사가 각 부문별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현찬희 한국하이델베르크(주) 이사 △한기용 (주)에인미술 부장 △김길영 대원아트팩(주) 본부장이 우수 임직원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등 3개 안건이 부의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산악회, 2023년 시산제 개최
경기도 포천 왕방산에서 업계 발전과 산행 간 무사안전을 기원



서울산악회(회장 최종환)는 지난 3월 11일(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왕방산에서 업계 발전과 산행 간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열었다. 이날 산행에는 김윤중 이사장 등 인쇄 단체장과 서울산악회 전현직 임원 및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7시 30분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출발한 서울산악회는 왕방산에 도착하여 가벼운 산행을 마치고 산신에게 한 해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서울산악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최종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회원님들이 시산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1년 살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 시산제를 마련하는 만큼 앞으로도 성심을 담아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인산회, 2023년 시산제 열어
강화도 해명산(석모도)에서 4년 만에 시산제 개최

지난 3월 26일(일) 인산회(회장 김영배)는 강화도 석모도에 위치한 해명산에서 시산제를 개최했다. 강화도로 향한 회원들은 해명산 정상에 올라 피어나기 시작한 봄꽃과 서해의 정취를 한껏 즐겼다. 이어 진행된 시산제에서 김영배 인산회 회장은 “이번 시산제를 통해 회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 번창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산제에는 김윤중 이사장과 인쇄단체 관계자 및 인산회 전현직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타라유통,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업계와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주)타라유통(대표이사 이재수)는 지난 3월 6일(월)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타라그룹 강경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타라그룹은 상생과 협력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주)타라유통 이재수 대표이사는 “임원들부터 새로운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분들에게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라유통이 되겠다”고 전했다.

Notice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안내

조합원님들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씩,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문의는 아래의 문의처 및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서울시 누리집 (QR코드)



▶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아주인쇄(주)	이동준	이시운	대표
(주)동화인쇄공사			
월드지앤피(주)	월드그래픽	월드지앤피(주)	상호, 주소
	중구 퇴계로36길 46, 1층 (필동2가, 유창빌딩)	중구 필동로 37, 지하1층 (필동3가, 평강빌딩)	

▶ 결혼

• 문덕원색 김국진 대표의 딸 예지 양이 4월 8일 마리드블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부고

• 동양문화인쇄 권방우 대표가 지난 3월 10일 별세하셨습니다.



「인쇄업계 현안논의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각계 전문가와 인쇄업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폭넓게 논의

지난 3월 21일(화) 서울인쇄조합 회의실에서 『인쇄업계 현안논의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제27대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이 설정될 조합의 운영 방향 및 추진사항을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재 인쇄업계가 직면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김윤중 이사장은 모두발언으로 “제가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업계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업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1. 「중구 인쇄 특정개발 진흥지구」 관련

조가람 (사)한국인쇄학회 박사 : 지난 2017년에 「중구 인쇄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이후 전문위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진흥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서울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1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계획을 수정·보완했으며 현재도 진흥지구 지정은 유효한 상황이다.



김윤중 이사장

김윤중 이사장 : 말씀하신 「중구 인쇄 특정개발 진흥지구」 문제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사업과 더불어 서울시의원과 만나 소통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속해서 전문가와 계속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겠다.

논의 2. 「인쇄업계 인력 양성」 관련

강형곤 신구대학교 교수 : 학생들이 인쇄업계에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계기가 중요하다. 이에 신구대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는 내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인쇄분야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관련 단체의 관심과 후원이 매우 중요하다.

정다현 서울공업고등학교 교무주임 :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인쇄학과로 모집하는 가장 큰 홍보수단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조합의 지원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인쇄산업을 이해하고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조정미 서울공업고등학교 학과장 : 현재 인쇄학과는 기능인력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항상 상위권이다. 오프셋 분야와 디지털 분야 취업이 각각 50% 정도이며, 특히 디지털 인쇄업체에 취업한 여학생들은 업체 만족도도 높다. 인쇄업계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인식전환이 이뤄진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여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남학생들은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급여에 대한 이견이 있는 편인데, 이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차재영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 폴리텍대학의 경우 출판 인력 양성과 함께 산학협력단에서 디지털인쇄 분야를 중심으로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공자·비전공자 구분 없이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여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함께 이수하여 이를 통해 현장 인력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중 이사장 :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산학연이 함께 고민하여 원활히 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과 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을 통해 인력양성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추진에 따른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진흥계획 촉구 결의



조합은 지난 3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인쇄센터 복합문화공간에서 「중구 인쇄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17년 지정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 수립과정에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며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사)한국인쇄학회 조가람 박사를 초청, 특정개발진흥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와 중구청에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수립 서울시 승인은 보류

이날 조가람 박사는 2017년 7월 13일 결정·고시된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흥계획(안)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쇄 특정개발 진흥계획(안)은 2018년 1월부터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인쇄업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중구는 이 계획안을 지난 2018년 6월 18일 서울시에 상정 의뢰했으나 보류됐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보완을 거친 지난 2021년 4월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불가하여 승인되지 못했다.



김윤중 이사장

인쇄 특정개발 진흥계획(안)은 서울시 인쇄사업체 중 66.8%가 집중된 인쇄산업의 메카다.

조가람 박사는 “중구는 조선시대 주자소가 설치된 곳이며 도심형 산업인 인쇄산업이 자연발생한 곳”이라면서 “진흥계획은 이러한 중구의 기획·디자인, 프리프레스, 인쇄, 후가공 업체 등 관련업종을 진흥지구로 집적하여 인쇄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가람 박사는 중구 인쇄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중구의 인쇄업체는 96.5%가 10인 미만의 영세 세입자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주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도심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황과 관련하여 조가람 박사는 “하지만 인쇄산업은 10조원이라는 상당한 내수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높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은 이에 인쇄와 관련한 24개 권장업종을 진흥지구로 모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진흥계획으로는 △인쇄 및 권장업종 입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 구축 △SMP지식산업센터 구축 △인쇄산업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환경 조성사업 추진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있다.

표류하는 진흥계획, 인쇄업계가 단결하여 해결해야

이러한 진흥계획(안)은 두 차례 상정에 실패한 이후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위기에 놓였다. 올해 확정 공고된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5년간 서울도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구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구 소재 서울인쇄조합 조합원들은 중구 인쇄업체 전체가 하나로 단결하여 서울시와 중구청에 진흥계획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계획(안) 수립에 참여했던 한 조합원은 “인쇄 스마트앵커 시설은 진흥계획의 핵심 시설이므로 업계가 합심하여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윤중 이사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는 우리 인쇄업계가 급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조합원님들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증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며 “조합은 현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중구 인쇄산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및 각 부회 간사장과 언론매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4월 1일부로 하토가이 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급변하는 환경 속 고객 맞춤형 경험을 실천할 것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하토가이 준, 이하 한국후지필름BI)은 지난 3월 31일 2023년 4월 1일부로 하토가이 준(鳩貝 潤)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하토가이 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90년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후지필름BI(구 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 입사했다. 엔지니어링 시스템 영업직을 시작으로 2007년 중국 지사 영업부 매니저, 2012년 베트남 지사의 영업부 부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오피스 솔루션 세일즈 확대를 견인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쌓았고, 일본 본사에서도 다국적 인재들로 구성된 부서를 이끌며 글로벌 리더십과 인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후지필름BI는 하토가이 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후지필름BI에서 30여 년간 쌓아 올린 풍부한 노하우와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혁신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토가이 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이 전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재택근무와 적극적인 AI 활용 등 새로운 근무 환경과 트렌드를 직면하고 있다”라며 “한국후지필름BI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지원하는 기업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최적의 방법으로 혁신을 제공해 ‘고객 행복 경험(Customer Happy Experience)’을 강화하고 실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후지필름BI 하토가이 준(鳩貝 潤) 신임 대표이사



[학력]

1990년 3월 메이지대학 법학부 졸업

[주요 경력]

1990년 4월 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입사, 엔지니어링 시스템 영업부 근무

2007년 후지제록스 중국 주식회사, 영업부 매니저

2012년 후지제록스 베트남 주식회사, 영업부 부장

2017년 후지제록스 주식회사, 후지제록스 글로벌 서비스 영업부 부장

2020년 후지제록스 주식회사, 중앙영업사업부 해외마케팅 영업부 부장 및 아시아태평양 LEO 영업부 부장 겸임

2023년 4월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 (現) 대표이사 사장

승계 고민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안내

가업승계 세제개편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맞춤 컨설팅 제공

2023년부터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적용대상 확대 △공제한도 확대 △요건 완화 등 기존보다 대폭 개선된 제도로 시행 중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승계 지원 세제 및 승계 준비 절차 등에 대하여 전국의 가업승계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2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 및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편 내용	
적용대상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미만
공제(특례)한도	(상속)최대 500억 → 600억 (증여)최대 100억 → 600억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지분 50%이상(상장 30%) → 40%(상장 20%)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	가업재산 비율 무관 20년 (10년 거치 가능)
고용유지 요건	7년 평균 100%(매년 80%) → 5년 평균 90%(매년 삭제)
자산유지 요건	7년간 20%이상 처분제한 → 5년간 40%이상 제한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	신설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승계 진행(희망) 중소기업
- **자문기간** : 3월 ~ 12월 중(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중소기업 승계자문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현장방문
- **주요내용** : 가업승계 세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액계산, 주식가치평가 등

BOOK

[2030 축의 전환]



저자 : 마우로 기옌
번역 : 우진하
출판사 : 리더스북

기존의 축을 비틀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출생률 감소와 세대·성·지역·계급 갈등,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이야기하는 지각변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의 축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젊은 세대에서 나이 든 세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상시적 발명과 기술 혁신이 소유나 화폐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바꿀 것이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변혁을 맞이할 국가와 기업, 개인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 중에 지속될 것은 무엇이며,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주요 메가트렌드의 변화가 초래할 기회와 위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2030 축의 전환」은 우리가 딛고 선 모든 현실이 전복되는 거대한 기점을 향한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초거대 위협]



저자 : 누리엘 루비니
번역 : 박슬라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모든 것을 뒤바꿀
미래의 위기 앞에
현명히 대비해야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이자 가장 논쟁적인 예측가, ‘닥터 돔’ 누리엘 루비니가 돌아왔다. 전작 『위기 경제학』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에는 『초거대 위협』(MegaThreats)이라는 제목대로 오늘날 전 세계에 드리운 ‘거대한 위협’ 10가지를 해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10가지 위기와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대한 기록과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데, 수리 모델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물가와 금리, 내수와 무역, 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거장의 통찰이 곳곳에 담긴 이 책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점이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culture

수요기관 및 해외바이어가 한곳에 모인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

4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MAS제도·나라장터 이용 안내 등 다양한 구매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회까지 마련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이 4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조달청과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경기도·고양시·조달청 MOU 체결을 통해 구매 담당자 초청을 강화했으며, 수요기관 공공구매 상담회 확대 운영으로 참가업체의 판로확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이뤄지는 구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시, 현장에서 수강 확인증을 배포되며 조달교육원 및 정부조달마스협회 교육 수료시, 계약이행 실적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주요 행사]

- 공공기관, 대기업 - 참가업체 간 1:1 공공구매 상담회
- 1: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전시 참가업체 대상 우수업체 선정 및 시상 (전시품목 당 우수업체 선정, 조달청장 표창 및 시상)
- 참가업체 신제품 발표회
-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 우수제품 지정서 수여식
- 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자 시상식 등
-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지역기업 방문 투어

전시 안내

전시 기간 2023.4.26.(수) ~ 2023.4.28.(금)
전시 장소 경기도 일산 KINTEX 제1전시장 Hall 3-5
관람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참가비 무료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항동 공장



일산 장항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



디테일이 만드는 내일 **EPSON**
EXCEED YOUR VISION

FUJIFILM
Value from Innovation

JetPress 1160CF



카탈로그 QR코드

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주)

fujifilm.com/fbkr

고객센터 번호 1544-8988

후지필름의 새로운 디지털 컬러 잉크젯 연속지 시스템

Jet Press 1160CF

동급 최고 속도와 품질로 당신의 비즈니스 혁신과 성공을 경험해보세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출시와 동시에 국내 우수 업체 3개사 도입 검토 중



AI 기술을 통한 고품질 출력

후지필름이 독자 개발한 이미지 최적화 AI 기술과 고농도의 안료 잉크가 미세한 선과 이미지의 선명한 색상을 구현



강력한 생산성

동급 최고 속도인 분당 160 M 양면 출력 (1,200 × 600 적용 시)



작업시간 단축

후지필름이 자체 개발한 립 서버로 스펀링없이 출력해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편리한 인터페이스

간단한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 손쉽게 기기를 작동